

무등원보

박내영 도체육회 사무처장 '행정학 박사' 취득

전남대 행정대학원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요인' 논문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60)이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박 사무처장은 최근 전남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지도교수 복문수)이 최종 통과된 것으로 도체육회가 밝혔다.

이로써 현직 공무원(2급 이사관) 신분을 유지한 채 전남도체육회에 파견근무중인 박내영 사무처장은 학문과 현장실무를 겸비한 행정학 박사라는 개인적인 영광을 안게 됐다.

이번 박 처장의 박사 취득은 지난 2003년도 박사학위 대학원에 발을 내딛었지만 지도교수로부터 '지방공기업의 실패 사례 분석'의 논문제목을 권유받고 자료를 준비하다 인간적인 고뇌로 중단한 뒤 뒤늦게 학위를 취득했다.

박 처장은 도 관광문화국장 재임시 체육 업무를 접했던 경험을 살려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에 부임한 뒤 체육인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데 앞장서면서 이번 박사논문을 틈틈히 준비했다는 평가다.

박내영 사무처장은 이번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출발 자체가 정부 주도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자생력과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이 궁극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기존 시장 경제 영역에서 경쟁 및 협조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에 대해 박내영 사무처장은 "이번 행정학 박사를 통해 정년퇴임 후에도 연구를 계속해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내영 사무처장은 오는 26일 전남대 졸업식에서 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임정욱기자

광주매일

박내영 전남체육회 사무처장 박사학위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오는 26일 전남대 학위수여식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박 사무처장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선진국의 사회적 기업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방면으로 논했다.

박 사무처장은 "행정학박사학위 취득을 통해 정년퇴임 후에도 연구를 계속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데도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genius@kjdaily.com